

2025학년도 1학기 독서클럽(27기) 테마도서 서평

작성자	윤소정	도서명	이중 하나는 거짓말
학번	2531048	저자명	김애란

서평 내용 (개별항목 및 항목별 분량은 자유롭게 조정가능, **1,000자 이상** 작성)

■ 도서 선정 이유 (이 책을 선택한 계기나 흥미를 끈 이유)

*100자 내외

해당 도서의 저자 김애란을 좋아한다. 『달려라 아비』, 『두근두근 내 인생』 등 따뜻하고 현실적인 이야기에 재미를 느낀다. 오랫동안 나오지 않던 신간이 최근 간행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독서클럽에서 학우들과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 주요 내용 요약

*300~400자

『이중 하나는 거짓말』은 상실의 고통을 겪는 각기 다른 청소년들이, 서로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하며 치유하는 이야기이다. 주인공 아이들은 총 3명으로, 손을 잡았을 때 상대의 단기적 수명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리’, 엄마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남긴 채 새아빠와 남게 된 ‘지우’, 아빠를 죽게 만든 죄책감과 죄를 뒤집어쓴 엄마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채운’이다. 이들은 서로의 비밀, 또는 거짓말에 대해 알게 되며 “거짓말이 거짓말을 돕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 느낀점 및 인상 깊은 부분

*400~500자

첫 완독을 하고 나서는 진심을 짝짝 눌러 담은 듯한 인상을 받았다. 처음 기대했던 만큼의 감동은 아니었지만 작가의 섬세하고 여린 문장들이 가슴을 울렸다. 반려동물과 어른에 대한 고통(또는 상실)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아이들이 만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독자로 하여금 슬픔을 안겨다 줄 수 밖에 없는 플롯이었다. 왜 이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야 할까,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지내야 하는 걸까. 아이들을 지켜줄 좋은 어른은 옆에 없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쯤 세 명의 어른이 등장한다. 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완벽한 어른은 아니다. 그저 지우, 소리, 채운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조금이나마 알려줄 뿐이다. 나는 ‘좋은 어른’이란 무엇일까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다. 누군가에 좋은 어른이라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 지금도 점점 사라져가고, 얼마 남지 않은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본보기가 되어야 할까? 이 책은 그러한 관점에서 독자에게 질문을 던진다.

■ 도서 추천 여부 및 이유

*100자 내외

해당 아이들과 비슷한 상실의 감정 안에서 혼란을 겪는 청소년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비단 반려동물이나 부모 뿐만 아니라, 학교라는 작은 사회 안에서 겪는 작디 작은 이별도 청소년에게는 큰 아픔일 수 있으니.

[서평 침삭 및 제출 방법]

서평 작성 ▶ 스마트자기관리시스템 [\[사고와 표현 과정\]](#) [내외국인 표현능력상담](#) 프로그램 신청 ▶ 침삭내용 토대로 내용 수정 ▶ 서평 본문 및 침삭과정(상담 신청 캡처, 침삭메일 등)을 PDF파일 1개로 합쳐 E-CLASS 커뮤니티 제출